

호주의 인적자원개발 : 정책과 사례

최병학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I. 출장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호주의 평생교육시스템, 산학협력, 대학중심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향후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호주 사례를 통해 그 지역들이 당면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내 평생학습체제 및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 파악 및 시사점 발굴(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동향 파악)
- 훈련 산업으로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 중심 인력개발 및 기관 간 협력형태 시사점 발굴
 - 호주의 교육훈련제도 파악 및 DEST(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Australian Government 교육과학기술부)와 TAFE(The Technical and Farther Education)의 평생학습을 통한 성인학습 위상,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 다양한 평생학습시설 및 단체들 간 연계 강화 및 학습에 대한 투자 증대 사례 연구
- 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와의 공동연수를 통해 타 지역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사례 및 정책방향을 토의함으로써 충남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출장자

소속	출장자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염돈민 센터장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심인선 센터장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김용현 센터장
울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강영훈 센터장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최병학 센터장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함창모 연구위원, 이근우 책임연구원

2. 연수지역

- 참가인원 : 전국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
센터장 및 연구원(7명)
- 연수국가 : 호주 (캔버라, 시드니)
- 연수일정 : 2007. 5. 11(금) ~ 2007. 5. 19(토)
(8박 9일)



3. 호주 현황

- 국가형태 : 연방 국가(정확한 국가 명칭 : Commonwealth of Australia)
수도 : 캔버라(Canberra, 31만명)
- 면 적 : 7,741,220km² (한반도의 약 35배,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¹⁾으로 구성)
 -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 주요 도시들은 해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
- 인 구 : 약 20,623천명(2006.9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 (Victoria), 퀸
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
니아(Tasmania)순
 -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 인구 약 390만명), 멜버른(Melbourne, 인구 320만명),

1) 6개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 퀸즐랜드(QLD), 서호주(WA), 남호주(SA), 태즈메이니아(TAS), 2개의 특별자치구 : 노던테리토리(NT), 호주수도자치구(ACT)

브리즈번(Brisbane, 인구 160만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인구의 도시 편중현상이 가장 심한 나라중 하나로 전체 60% 정도가 각 주의 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20%는 시드니에 살고 있다. 2000년 당시 인구증가율은 1.02%, 출생률은 1,000명당 13.08명, 사망률은 7.12명, 영아사망률은 5.04명이고 15세 이하 인구는 21%이다. 평균수명은 79.75세로 남자는 76.9세 여자는 82.74세이며 1901년 백호주의정책을 고수해오다가 1973년 이를 폐지하였다.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자 경계심이 고조되어 1991년 투자이민을 제한하고, 자영업 기술이민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 정부는 매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자수를 조절한다.

○ 민 족 : 영국계(77%),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21%), 원주민(2.0%)

○ 언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24%, 천주교 26%, 감리교 2.6%, 연합회 7.6%, 장로교 3.6%, 희랍 정교 2.9%) 등

○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봄: 9-11월, 여름: 12-2월, 가을: 3-5월, 겨울: 6-8월,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 평균 해발 300m 이하(최고 Kosciusko 산 2,228m)

○ 사회보장

-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고 근대적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어있다. 1909년부터 국민 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이 증대하여 고령자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에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출산수당, 육아수당, 실업자급부금, 질병급부, 과부연금, 부양가족을 거느린 모친에의 급부 등 각종 수당이 있고, 건강보험제도가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다.
-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보는 교회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주택정책도 추진되어 자택소유자가 전체의 70%이다. 무료의무교육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초 등, 중등과정의 10년이다.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12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대학의 재정은 연방, 주의 보조금과 민간의 보조금,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각종 장학금도 많다.

II. 연수 일정 및 내용

1. 연수일정(8박 9일)

일 자	방 문 지 역	지 역
05/12(토)	시드니 도착(07:25) → 캔버라 이동 → 전쟁기념관(김포전투) → Ainsline 언덕에서 캔버라 시내 조망	캔버라
05/13(일)	캔버라 의회 방문(상·하원) → Old Bus depot market 방문 → Wineary 방문 → Rug market 마노카 쇼핑센터	
05/14(월)	Botanic 국립공원 방문 → Dest(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Tranig) 방문 → National capital exhibition 방문	
05/15(화)	Bungendore village 방문 → Technology Park AIE 방문 → 시드니 이동	캔버라 시드니
05/16(수)	Sydney 대학 → 아쿠아리움강당 → Rock 음식점 DET(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빠피옹 영화촬영지(겍팍 등)	시드니
05/17(목)	Sydney 타워 → 시드니 선상크루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 쇼핑 → TAFE(The Technical and Farther Education) → 카지노 → 하버브리지	
05/18(금)	야생 동물원 → 블루마운틴	
05/19(토)	인천 도착	

2. 캔버라

- 호주의 수도²⁾, 캔버라(Canberra)로 정확한 명칭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 인구는 약 31만명(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계획 도시³⁾
 - 도시 공간 구조를 그리핀 호수 남쪽의 수도행정지구, 호수 북쪽의 도심, 호수 동북쪽의 러셀 오피스 지역으로 형성된 3각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공업지역, 준농림지역, 시장중심, 관청중심, 군대 등이 독립된 기능배치형태

2) 1908년 수도로 선정, 전 세계에서 공모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1913년에 착공, 1927년에 멜버른에서 수도를 옮겼다

3) 캔버라는 계획도시로 설계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벌리 그리핀 호수(Lake Burley Griffin)를 중심으로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공원과 근대적인 건물이 위치해 있고 호수의 남쪽으로 국회의사당과 각국의 대사관들 위치

- 주요 시설 : 국회의사당, 국립전쟁기념관(1941), 구 의사당4), 77개국의 대사관, 교육기관(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 공과대학 및 사범대학 소재),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도서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미술관, 연방 과학 · 산업 연구기관,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연구소 본부

〈공식방문〉

- DEST(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Australian Government 교육과학 기술부), Ms Astrida Upities Director 면담
 -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 다양한 분야 업무 진행과 과학과 훈련분야 중심(School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Training & skill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education, Indigenous education, Science & innovation
 - DEST는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산업, 여타 공공기관 등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 제공
 - 수요 대응형 평생학습차원의 정책 개발 시행, 국가 펀드를 이용하여 높은 교육의 질과 가치를 제공
 - 국가차원에서 학생들 학습향상에 경쟁력 있는 표준제공
 - 교수법의 향상과 학교 및 직업교육 지원, 다양한 재 기술 교육과 산업과 지역 수요에 맞는 훈련교육 제공



4) 1927년 건립, 60년간 호주 정치의 중심지, 초상화 전문 국립미술관, 장미가든

- 학교졸업생들의 장기적인 훈련지원, 직업교육기관의 협력 증대 및 개인 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증대, 정규학교 교육후의 지속적 성과학보를 위한 직업교육, 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혁신 향상, 취업정보제공
- 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공식방문〉

- ACPET(Australian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Training) - Ian Gibson(Chief Executive Officer, ACT대표), ACPET(Australian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국가이사 면담, Frank Sette(ACT Executive Officer)
- 캔버라 Technology Park내에 소재(www.aie.edu.au) (캔버라 캠퍼스와 멜버른 캠퍼스가 있음)
- AIE(Academic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3D 그래픽 예술 및 게임 프로그램 산업관련 교육제공, 게임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학위 제공, Online courses로 Certificate III(animation, digital compositing, games programming)과정이 있으며, 성공적으로 과정 이수 후 Certificate IV선택가능
- AIE 학위 과정의 모든 졸업생은 관련 산업분야 취업 및 캔버라 대학의 해당 학과의 학위 프로그램 참여 자격 인정(대학과 연계)
-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 훈련기관 혹은 사설 직업훈련학교



3. 시드니

- 호주의 최대도시,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⁵⁾, 오페라 하우스⁶⁾와 하버 브릿지가 유명

5)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 이태리의 나폴리

6) 커팅턴 오렌지 조각에서 그 디자인이 유래 되었다는 설, 14년간 공사를 거쳐 1973년에 완성, 실내는 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과 부설된 방이 1,000여개, 가장 큰 콘서트홀은 2,700명의 관객을 수용, 1,6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오페라 극장도 유명

〈공식방문〉

- DET(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훈련국), Dr Caroline Alcorso Manager 면담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우리로 말하면 지자체(뉴사우스웨스트주)의 교육훈련담당국
 - Early Childhood and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igher Education
 - 직업교육과 훈련에 Ecosystem 적용
 -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고용과 높은 수준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경력 향상이 주요목적



Skill Ecosystem

• 핵심 아이디어

- concentrations of workforce skills and knowledge in an industry or a region
- 작업장에서 기술개발과 지식 활용지원이 시스템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에 집중
- 높은 기술 향상과 사업 목표 실현을 위한 건전한 ECOSYSTEMS, 산업간 파트너십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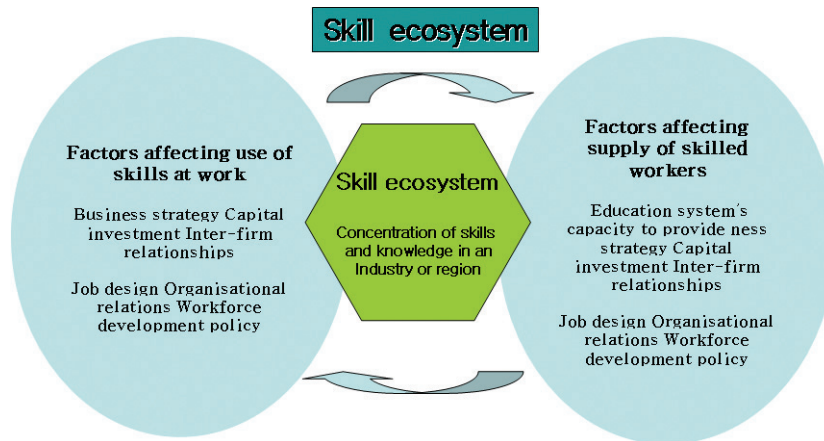
• 근거

- 산업수요와 내용에 맞는 적합성과 기술수준 교육(existing workers vs entry level)
- 공공기금의 낭비(wastage) 축소, 기술부족지원 산업과 훈련 산업에 대한 VET 반응성 향상, VET와 산업발전과 연계
- 산업과 기술수준에 맞는 훈련수요의 창출 및 교육을 통해 공공기금의 낭비 최소화

• 역사

- '03~'05년 일부 주에서 9개의 프로젝트 시행
- '06년 DEST에서 새로운 단계 한 프로그램 지원 받음(NSW DET가 운영), '07-'08년 시행단계

- 산업능력향상과 Ecosystem을 강화하기 위한 VET 전략



○ 사례 : NSW racing industry

1. 경마기수 부족이 큰 문제
2. Project team은 기수들의 능력이 질적으로 낮음을 진단. 즉 경마기수의 프리랜스 일자리가 기술향상에 방해되고 관련 업무 종사자 부족현상을 불리했음
3. 고용관련 제반규정(employment arrangements)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훈련 자체는 비효과적이고 예산낭비
4. 경주협회(Race club)는 보다 일상적(regular)이며 더 오래 머물러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기수 훈련자(trainer) 인적자원을 양성
5. 경험 있는 기수들이 경마사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유인체계 형성, 더 많은 말들이 클럽에 속하게 되고 기술 발전형성

○ How does the approach work in practice?

- Starting point : an organizational issue or opportunity
- Establish : network with breadth of stakeholders
- Investigate and diagnose : consultation ; information intensive
- Strategies : skill-related strategies and what else will make a difference?
- Substantiality : address systems issues
- Implementation : a learning network approach.

○ National skill ecosystem projects 2006

Type	Focus
1. Dairy Australia	Skill, employment and management systems to support shift to higher value-added production
2.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Shift perceptions of the red meat industry by creating career pathes and regional community support systems
3. ACROD	Creating a sustainable workforce for the disability sector
4. Swinburne UT(TAFF)	Identify requirements to realise the potential of simulation technologies in advanced engineering
5. EE-Oz Training Standards	Examine job structure and career paths to improve workforce attraction and retention
6. TAFF SA	Roadmap for collaboration between RTOs and mobile digital content industry

○ DET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현황

- 높은 질의 훈련교육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공교육 및 훈련교육을 어린시절(pre-school) 부터 의 무교육기간실시하고, 상급학교 교육은 NSW Higher School Certificate (in Years 11 and 12)로 역할을 하게 함
- TAFF NSW 코스를 지원하고 성인 사회 (Community)교육, 영어교육, 예술과정, 높은 교육에 대한 NSW Government 조언, 산업에 필요한 훈련에 조언, 교역부분에 부족한 기술에 대응하는 자문
- 평생교육체제 촉진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직장으로 혹은 더 필요한 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후하고 직업에 대한 의무교육과 더 많은 연구
- 약 75만 명의 학생들이 2,200개 NSW 정부 학교(초등, 중고등, 대학, 전문가 등 포함)에서 정규 5만여 명의 선생으로부터 지도 받고 있으며, 50만이 넘는 등록생과 만 명이 넘는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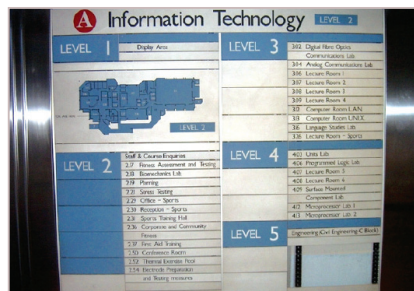


들로 구성된 TAFF NSW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훈련공급자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된 광범위한 범위의 교육을 담당하는 10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음

〈공식방문〉

○ TAFF(기술전문대학(기술계속교육) :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Ainseley Gikes Study Tours Manager, Tim De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Irene Booth Director Strategic Development, Trrri Connellan A/College Director 면담

- 기술 교육과 추가 교육을 위한 호주의 전문학교
- 모든 주요 산업 기술과 함께 상업, 예술, 가내 직업 등의 광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첨단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수업내용이 실기 위주
- 입학기준 : Post secondary Program : 고등학교 10학년을 마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Certificate I ~ III과정 이수가능, 해외유학생은 공식 영어점수(IELTS(5.0~5.5), TOEFL(550~580) 필요)
- 우리나라의 폴리텍 대학(전공에 따라 다양한 과정이 있음)정도
-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인 고등교육기관,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과 관계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음
- TAFF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편
- TAFF는 우리나라 폴리텍대학(대학 수준의 종합기술전문학교), 기술학교, 미국의 지역전문대학과 유사, 실제적이면서 경력 중심의 훈련제공, TAFF 교육기관은 직업교육 및 연수(VET)코스 제공
- 모든 교육기관 및 칼리지는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 VET 졸업생들은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직업을 구하기 용이하고 디플로마 및 학사학위 코스를 위한 대학교 입학에 포함한 고등교육 코스로 진학이 가능





III. 연수후기

1. 시사점

○ 호주의 평생교육 정책과 직업훈련교육 개혁

1. 호주 평생교육에의 접근

첫째, 직업세계의 변화이다. 호주는 전통적인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에 따라 호주의 기업들은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국제적 경쟁력은 바로 잘 교육받은 노동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셋째, 사회 통합과 시민 사회의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와 지식 경제 시대의 도래와 지식과 학습에의 접근 기회가 부족으로 생기는,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예방과 극복 방안이 바로 평생학습으로 보는 것이다.

2. 호주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

호주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호주의 성인들이 직업 세계에서 밀려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주는 모든 국민들이 기초 능력을 기지도록 하고 학교, 일터, 계속교육을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보다시피 호주의 평생교육은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직업교육훈련체제인 호주 국가훈련기구(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의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기구와 연합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여러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국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금을 공급하며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전략을 '미래를 위한 가교'로 정하여 호주 국민의 일의 세계 참여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신장,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 강화,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공평한 성과 달성, 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공공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다섯 가지의 목표를 설정,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직업교육에 연결시켜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능력 및 자질과 직업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교육제도 자체가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에 서서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졸업시까지 자신의 능력, 적성, 직업의식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 평생교육 측면에서 VET(직업교육훈련) 실시

이 역시 공교육(학교교육)의 높은 비율에 비해 직업훈련교육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사점 제공하고 있다. 교육을 교육자체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조절함으로써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시대에 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직업훈련제도를 연구하고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교육시스템을 교육과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평생교육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지역 교육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 등 직업전문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산업체와 연계(예: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하고 있으며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VET와 산업발전을 연계하는 등 교육훈련 제도를 Ecosystem으로 이해하고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시설 및 단체들 간 학습 연계 강화에 대한 우수사례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과 관계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TAFE는 우리나라의 폴리텍대학(대학 수준의 종합기술전문학교), 기술학교, 미국의 지역전문대학과 유사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실제적이면서 경력 중심의 훈련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TAFE 교육기관은 직업교육 및 연수(VET)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 및 칼리지와 직업훈련기관 및 평생교육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자격 및 학위취득의 보장 즉, VET 졸업생의 직업 취득의 용이함과 디플로마 및 학사학위 코스를 위한 대학교 입학에 포함한 고등교육 코스로 진학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직업훈련기관으로 진학의 자유로움(고등학교 10학년을 마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Certificate I ~ III과정 이수가능,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을 부여하고 있다.

○ 인력의 수요와 공급 연계

산업 및 지역수준에서 인력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필요 기술 및 지식을 연계를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배분을 실현하고 있다.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직업훈련교육)의

활성화 및 일반화 TAFE(기술계속교육 :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은 전국단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연계하고 있으며 지역 및 사적인 부분의 직업전문훈련기관과도 연계가 되어 필요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 수요의 정제와 필요인력 공급의 부재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적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기타

○ 비교적 잘 갖추어진 평생교육시스템과 사회보장 시스템, 직업훈련

-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 개인의 적성, 자질 그리고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개인의 잠재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개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성,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 넓은 국토와 여러 인종, 아름다운 도시 및 쾌적하고 잘 보전된 자연 환경이 인상적

- 호주의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인구가 대륙 곳곳에 균등하게 퍼져있지 않을까 상상했지만 실제로 호주인구의 86퍼센트는 도시거주자들이며 그 중 65퍼센트, 즉 가장 비옥한 해안의 평야에 위치한 도시에 25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인구의 약 40퍼센트인 725만 이상의 사람들은 시드니와 멜버른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주요도시들 (Adelaide, Brisbane and Perth)에는 약 100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들었다.

호주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수한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는 말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다. 시드니의 멋진 야경, 훌륭한 레스토랑과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무엇보다 오페라와 발레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좀 더 작은 주와 영토의 수도들은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와 박물관들, 아트갤러리 그리고 극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활동적이며 그러한 것에 흥미를 느끼는 부유한 호주인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호주 시드니 근교의 도시에서 거리에서 침을 뱉을 경우 최고 1,100달러, 한화로 약 8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사소한 것까지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쾌한 날씨와 편리한 교통수단, 현대식 건축양식등과 유사한 환경의 국제도시들보다 범죄비율이 낮은 점으로 호주도시의 삶의 긍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